

**금주 법구**  
 불현듯 일어나는 한 생각 악한 뜻이  
 되돌아 스스로 불 파괴함이  
 쇠에서 생긴 녹이 다른 곳 가기 전에  
 도리어 쇠붙이를 파괴함과 같다네.  
 -법구경-

# 현대불교

불교신문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창간 2545년(서기 2001년) 6월 13일 수요일(주간) 제 322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환경포기의 날' 선포

99년부터 정부와 환경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해 온 '환경의 날' 행사가 올해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입장차이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안과 밖에서 각각 따로 열렸다. 지난해 정부가 동강댐을 백지화하고, 환경선언까지 발표하자 환경국가로의 기대를 가졌던 종교·환경단체들은 5일 세종문화회관 박인 분수대광장에서 '환경 포기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국장은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갯벌의 수많은 생명을 살육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졌는가"라고 되물으며 "새만금을 지키지 못한 침담한 심정으로 '환경을 포기한 환경의 날'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만경강 알바다에 제방을 쌓아 여의도 140배 크기의 농지와 담수호를 만드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부가 친환경적 수차개발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지속추진의 당위성에 여전히 의문의 꼬리를 달고 있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일 이후 부족한 식량자원과 전북지역의 극심한 식수난을 해결기 위한 수자원 마련을 위해 갯벌간척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 반대 이유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안 갯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식량자원과 수자원 확보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유용하고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이 살아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새만금 보존이 필수라는 것이다. 재어감각을 잃어버린 산업기 계층명이 회복하기 힘든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물고 왔듯이 결국 개발이라는 인간의 삶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는 인간의 삶이 못 생명들과 공생하는 자비의 삶으로 이행



할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욕망과 시기 질시의 경쟁의 삶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라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새만금 갯벌연대 집행위원장인 수경순님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토목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의 강행 또는 포기 여부에 따라 환경정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며 "정부가 생명과과와 물질만능의 가치관에 입각한 개발의 망상을 극복하고 공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갯벌 간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 "백제 관음상 아스카 대표불상" "법륜사 목탑 독자 조성"

# 日 역사 교과서 불교도 '왜곡'

### '한반도서 불교전래' 의도적 누락

역사왜곡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우익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쪽이 집필하고 후소사(扶桑社)가 펴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신일본 교과서)가, 한 일 불교 문화사 기술 부분도 상당 부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시판에 들어간 이 교과서는, 일본의 고대 불교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당시 한반도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대별 대표적 문화재를 다룬 회보 중 법륜사의 백제관음상 설명에서 "백제 관음상은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녹나무는 중국, 조선에서 자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영우 교수(국민대학교 신림자연과학과)는 "녹나무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상록수종 중국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제주도과 남해안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어느 수목도감을 봐도 나올 정도로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후소사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대표적 왜곡 사례

항 목	교과서 내용	바로 잡아야 할 내용
백제관음상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녹나무는 중국, 조선에서 자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녹나무는 제주도, 중국 동지에서도 자생하는 상록수. 백제관음상은 그 당시으로 볼 때 백제인이 만든 것으로 볼
법륜사 오층목탑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	일본은 아스카 시대에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여 사찰 건축양식이나 기법을 받아들여 목탑을 조성했다는
아스카 문화	법륜사는 5층탑이나 금당만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배치	불교를 받아들여 사찰 건축양식이나 기법을 받아들여 목탑을 조성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통설
나라 시대	불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 발전하였다.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불교의 이론을 연구하고	한반도에서의 불교 전래에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

오히려 "조화롭고 아름다운 5층탑이나 금당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배치"임을 내세우고 있다. "나라시대 불교문화를 설명하면서 '불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 발전

하였다.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불교의 이론을 연구하고"라고 기술해 한반도에서의 불교전래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22면으로 계속

### 연등축제 최우수상 한미음선원 받아

불교위원회(위원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7일 불교회관에서 불기 2545년 연등축제 참가단체 시상식을 봉행하고 한미음선원 등 19개 사찰과 단체에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인 불교상에는 한미음선원, 연등상(우수상)은 청량사, 정진상은 농인선원 조계사 봉은사 우리는선우 영화사 성심사, 또 진각종과 사자암 한미음선원연합회와 중교대학생회 조계종복지재단이 부문상을 수상했다.

불교위원회는 또 정가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부회장, 김순임 불교합창단연합회장, 장수연 불교방송 아나운서가 연등축제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받았다. 정성운 기자



### "극락왕생 하소서" 금강경 독송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금강경 독송회(회장 김재웅) 회원 100여명은 6일 서울 속삭동 국립묘지 무명용사비 앞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한미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지역불교 문화기행

#### 윤사월 적멸보궁 3寺순례

윤사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터워 하며 업장소멸과 공덕 쌓기를 발원하는 삼사(三寺) 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길게 뻗은 천마루 숲길로 유명한 월정사에서는 8각9층탑(국보 제 48호)과 5월 23일부터 윤사월 현달간만 성보박물관에서 공개하는 부처님 진신사리(진신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한사 적멸보궁에서는 자신의 인연을 청결하고 업장소멸을 발원하는 기도장전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구산선문의 중심도량 사자산 법흥사에서는 선종전각을 위해 치열하게 구도정진했던 선지식들의 향훈을 느껴보십시오.

○출 발: 6월 17(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중식제공)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사 03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주)한화여행



### 금강산서 6·15 통일 토론회

불교대표 15명 참가... 종교인 대회도 추진

불교 계신교 등 7개 종교와 민족화해협의회, 통일연대 등으로 구성으로 구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공동대표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외, 추진본부는 15~16일 금강산에서 북측 종교와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주제는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이며, 남북에서 대표단 각 200명과 남북 참관단 200명 등 모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 대표 1명씩의 연설과 6명씩 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swung@buddhans.com

### 남북 6·15 동시법회 공동발원문도 낭독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다짐하는 법회가 남북의 모든 사찰에서 봉행된다. 또 이날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도 낭독된다. 종단협의회는 7일 조별편에 공동발원문 수정본을 보내고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는 전 국 각 사찰별로 15일에 봉행하고, 공동발원문을 낭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본은 '통일조국, 현세의 지상정토를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해 공동선언을 계속 철저히 실천해 나가려는 서원을 부처님전에 발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성운 기자

### 장군죽비

- ◇조계종 총무원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촉구 성명 내기로. 모든 불제자들의 공동 정부는 자비와 평화 임을 명심하자. (2면)
- ◇악화일로에 있는 불 부족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치수도 중요하지 만 더 중요한 건 마음 관리. 욕망의 통제만이 근본해. (8면)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남북화해 발원 토론회.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고 역사에 헌신하는 종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9면)
- ◇참여불교 재가연대. 불교 생태공동체 건설 본격화. 지역 사회봉사 활동 등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청도평화학교' 개교기로. (23면)

##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潤年壽衣)는 달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 오동나무 막스

▲ 한나무 막스

###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농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의와 삼베 침구세트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삼베 特品이상)

품명	구분	재질	원가	백화점가	불자님가	특별혜택
삼베	二품	남 30중, 여10중	삼베의 품을 3배 이상 저렴한 후계로 인 10% 할인	600,000원	550,000원	10대형 부지, 오동나무 막스 보편형
삼베	一품	남 30중, 여10중	삼베의 품을 3배 이상 저렴한 후계로 인 10% 할인	900,000원	798,000원	10대형 부지, 오동나무 막스 보편형
삼베	特品	남 30중, 여10중	인물 상에서 개명한 대가 100% 원가 100% 당의 품을 3배 이상 저렴한 후계로 인 10% 할인	1,320,000원	1,150,000원	10대형 부지, 한나무 막스 보편형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리	特品	남 30중, 여10중	인물 상에서 개명한 대가 100% 원가 100% 당의 품을 3배 이상 저렴한 후계로 인 10% 할인	1,870,000원	1,450,000원	10대형 부지, 한나무 막스 보편형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세	남 30중, 여10중	순수 삼베 직면사 200%를 배제하고 최고급 직면사로 직면사 100%를 배제하여 최상의 상급	4,200,000원	3,950,000원	10대형 부지, 한나무 막스 보편형 삼베침구 세트증정

■ 깎개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윤달(윤사월 5.23 ~ 6.2)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주문을 받습니다.

株式会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본사/공방 경북 안동시 서후면 지리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혁신빌딩 1F  
 TEL. 02 586 2544 영업부 02 586 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